



네덜란드 프로축구, 인종차별 항의

주말 정규리그 킥오프 1분간 침묵 시위 계획

네덜란드 프로축구 1·2부리그 팀들이 이번 주말 정규리그 경기에서 '침묵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지난 주말 경기장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행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0일 "네덜란드 1·2부리그 팀들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팬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킥오프 휘슬 이후 1분 동안 경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경기를 하지 않는 1분은 전반전 추가 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선수들이 집단 행위에 나선 것은 현 지시간으로 17일 펼쳐진 네덜란드 2부리그 엑셀시오르 로테르담과 덴 보스의 경기에서 나온 덴 보스 팬들의 인종차별 응원 때문이다.

덴 보스의 일부 팬들은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의 흑인 선수인 아흐메드 멘데스 모레이라를 향해 "검둥이! 목화 따는 놈!"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흑인 비하 노래까지 불렀다.

주심은 경기 시작 30분 만에 경기를 일시 중단 시켜야 했다.

덴 보스 구단은 곧바로 모레이라에게 사과했고, 네덜란드축구협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덴 보스 팬들의 일탈 행위에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조르지니오 바이날둠과 프렌키 더 옴은 20일 에스토니아와 유로2020 예선 C조 최종전에서 첫 득점이 터진 뒤 서로의 팔뚝을 한데 모으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흑인인 바이날둠과 백인인 더 옴이 팔뚝의 피부색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주말 열리는 프로축구 1·2부리그 경기에서 '침묵 퍼포먼스'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각 구단은 경기 시작과 함께 전광판에 '인종차별? 그러면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우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창진, 올 신인 중 가장 돋보였다”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선정 '최고의 신인상'

“선배님들에게 열심히 한 걸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KIA타이거즈의 이창진이 프로야구 은퇴선수를 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신인상'을 받게 됐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이순철)는 21일 "팀 사정에 따라 내야에서 중견수로 포지션을 옮기면서도 133게임에 출전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친 이창진이 최고의 신인상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4년 프로에 데뷔한 6년 차 '늦깎이 신인' 이창진은 "은퇴한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더 뜻깊다. 인정받은 것 같다"며 "실력이 좋아서 주셨다고 생각은 안 한다.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T에서 이적한 이창진은 외야수로 변신, 끈기있는 승부로 KIA의 '샛별'이 됐다. 무엇보다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앞선 스프링캠프에서도 이창진은 눈에 띄는 재목이었다.

성실함으로 어필한 그는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한은회 신인상 수상자가 됐다.

"올해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며 웃은 이창진은 "캠프 때 잘했다고 생각 안 한다. 열심히만 했지 잘하지는 못했는데 감독, 코치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꾸준히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잘해서 기회를 얻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지난해 KT서 KIA로 이적

올해 외야수 변신 133게임 출전

매 경기 성실한 플레이 귀감

내년 목표는 '출루왕'

모교 후배에 야구용품 기부 선행도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창진은 초심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허리가 좋지 않아 재활조에서 캠프를 치른 이창진은 "휴식을 통해서 안 좋은 몸 상태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몸 잘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이유에는 '나눔'도 있다. 이창진은 지난 20일 모교인 부천 신도초등학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이창진은 "부모님과 상의하다가 기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내가 야구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이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 같

다"고 웃었다.

이창진은 '출루'로 확실히 자리를 잡겠다는 각오다.

이창진은 "올해 가지게 된 것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 내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릴까 인정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다"며 "공 하나하나 끝까지 보면서 계속 출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은회가 선정한 '2019 최고의 선수상'은 양의지(NC)에게 돌아갔다.

양의지는 올 시즌 0.354의 타율을 기록, '레전드 포수' 이민수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출루율과 장타율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리그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

'최고의 투수상'은 190.1이닝을 지키며 17승 6패 2.5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김광현(SK), '최고의 타자상'은 0.307의 타율로 104타점을 찍은 키움 유격수 김하성이 받는다.

BIC0412(백인천상) 수상자로는 평택 라온고 김지찬이 선정됐다. 두 차례 전국대회 준우승을 이끈 강릉고 최재호 감독은 공로패를 받는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양재동 L-타워 7층 그랜드 홀에서 열리는 '2019 한국프로 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리뉴 + 손흥민’ 기대감

토트넘, 내일 웨스트햄 원정…새 감독체제 손 활약 관심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브라질 친선경기를 치른 대국전사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해 다시 리그 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에게 특히 더 관심이 쏠린다.

토트넘은 23일 오후 9시 30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웨스트햄전은 토트넘이 시즌 중 사령탑 교체라는 강수를 둔 뒤 처음 치르는 경기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12라운드까지 단 3승(5무 4패)밖에 거두지 못해 20개 팀 중 14위까지 순위가 추락했다.

그러자 2014-2015시즌부터 팀을 이끈 마우시리오 포체티노 감독을 20일 경질하고 바로 조제 무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무리뉴는 지난해 12월 맨유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무리뉴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큰 빛을 보지 못했으나 포르투(포르투갈), 첼시(잉글랜드), 인터 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유 등 유럽 리그 명문 클럽을 지휘하며 무려 25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명장이다.

토트넘도 '스페셜 원'으로 불리는 무리뉴 감독이 팀의 반동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

다.

한국 축구 팬들은 아울러 손흥민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 등 실리를 추구하는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었을 때 무리뉴 감독은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손흥민은 정말 위협적이다. 빠른 역습을 허용하는 팀을 상대할 때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고 극찬했다.

맨유 감독 재임 시절에는 선수 영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내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살 수 있을까? 아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나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손흥민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팀에서는 거꾸 침묵한 손흥민이지만, 토트넘에서는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7일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4-0 승)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유럽 프로축구 통산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운 뒤 10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정규리그 12라운드 경기(1-1 무)에서도 선제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손흥민

세계 1위 썸카, 골프대항전 포기

무릎 부상…내달 12일 호주서 프레지던츠컵

남자세계골프랭킹 1위 브룩스 썸카(미국)가 무릎 부상으로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 나가지 않는다.

21일 골프채널에 따르면 썸카는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더CJ컵에서 왼쪽 무릎을 다친 뒤 재활을 해왔지만 치료에 더 시간이 필요해 대회에 결장하기로 했다.

유럽 선수를 제외한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과의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은

12월 12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썸카의 자리는 리키 파울러가 메운다. 파울러는 미국팀 단장 타이거 우즈 추천 선수에도 선발되지 못했지만, 썸카의 부상으로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다.

파울러는 2015년과 2017년 열린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해 4승1무3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